

〈時論〉

韓國 고무工業 50年 記念事業이 아쉽다

國立工業研究所圖書館長 朴 勝 敦

우리 나라에 고무工業이 輸入된지도 滿 50년이 되었다. 우리 韓國의 고무工業은 다른 나라와는 各別한 特質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로 우리 民族情緒에 깊게 浸透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所以然은 우리 民族은 고무신에 對해서는 都鄙나 男女, 또는 貧富나 老少를 가릴것 없이 모두가 熱烈한 愛着을 느끼게 된데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日帝下에서 우리 나라 工業은 植民地의 惡條件 때문에 제대로 育成이 못되었지만은 고무工業에 限해서만은 우리 民族의 必需品인 고무신 關係로 해서 他工業分野보다는 比較的 發達이 잘된 便이었고 또 直接 우리 民族自身에 의해서 많이 經營되어 왔다는 點이다. 한때 우리 나라에서는 精米業, 釀造業 및 고무工業이 3大人氣産業으로써 우리 韓人의 손에 依해 많이 運營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韓人業體로서 고무工業界에 頭角을 나타낸 것도 적지 않았으니 얼른 生覺나는 것만으로도 大陸고무, 京城고무, 中央商工, 平壤고무, 正昌고무(平壤), 東亞고무(木浦) 등을 들 수 있으며 解放後에는 國際, 東信, 泰和, 大東, 東洋 등 우리 나라 產業界의 巨星으로 登場한 것도 있다.

그리고 現在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고무製品은 그 種類에 있어서 相當히 多數에 이르고 또 그 品質에 있어서도 어느 部門에 있어서는 先進國과 對比하여도 別般 遜色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지난 半世紀동안 우리 고무工業이 이 程度로까지라도 發展한 裡面에는 實로 荆棘의 險路가 重疊하였든 것이니 日帝下 25年間의 暗黑期와 解放後 5.16革命前까지의 混亂期에 貧弱한 資本과 幼稚한 技術으로써 苦悶해온 當路者들의 辛苦야말로 想像에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凡, 사람이란 누구나 過去를 回想하고 잘된것 좋은 것은 그리워하고 잘못된 것 슬펐든 것은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것이 人情이며 지난 일을 殷鑑으로 하여 將來에 더 큰 發展을 期하기爲한 그야말로 溫古知新的 行事도 가져보고픈 마음의 衝動도 生기는 것이매 우리 고무工業도 波瀾萬丈의 50살을 먹었으니만큼 한번쯤 지난날을 回顧할수 있는 行事나 또는 現在 우리 業界의 當面한 經營技術 其外

重要事項을 檢討할수 있는 機會라든지 或은 앞으로의 우리 業界의 더욱 새로운 方向模索이라든지 其他 무엇인가 좋은 着想을 얻기爲한 舉事가 있었으면 한다. 重言하는 바이나 各界에서 흔히 舉行하는 念記行事 展覽會或은 紀念事業等과 같이 創業50年을 맞이한 우리 고무工業界에서도 그 무슨 行事가 아쉽워짐을 禁할수 없다. 筆者로서 生覺나는 紀念行事라는 것은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 ① 고무工業50年紀念고무研究所設置
- ② 고무工業50年紀念展覽會開催
- ③ 고무工業50年紀念고무業者大會開催
- ④ 韓國고무工業50年史發刊
- ⑤ 고무會館建立

以上과 같은 紀念事業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目的과 內容은 尙 說明이 不要되는 것이고 그 規模亦是 大小를 自由로 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紀念고무研究所에 있어서는 대충 5千萬원—1億원 程度의 規模는 되어야 할 것으로 推算된다(一時에 必要한 것도 아니나).

亦是 豫算問題인데 우리 고무 業界에서 上述한 바와 같이 大成한분도 많으니만큼 그러한 業者單獨事業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研究所같은 것) 또는 고무 團體(5個) 聯合으로써 할 性質의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고무業界에 보다 낡은 來日을爲한 新氣風을 鼓吹시키기爲해 무엇인가 生覺해 불만한 時點에 業界는 處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想起되는 것은 우리 고무業界에서는 우리나라의 著名한 人士, 그중에서도 國士들이 關聯하여 오늘의 繁榮을 가져왔다는 事實을 特히 잊어서는 안되리라 믿는다. 헤아리기도 慄恐하오나 現存 金季洙氏와 安東源氏外에 떠오르는 分으로는 故 李夏榮, 金性洙, 金東元(平壤), 金英俊 等 諸氏 들인바 이분들은 우리나라 產業立國을爲하여 率先奮鬪盡瘁하신 분들로써 우리 고무業界로서는 이러한 巨人들을 갖게된 榮光을 길이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고무界的 한 老兵으로서 우리 고무業界 앞날의 크나큰 繁榮을爲한 衷情에서 애오라지 管見을 披瀝하는 바이다.